Grammar Essentials

▣ 문어체와 '-다'의 기능

한국어에서는 말하기 중심의 구어체와 글쓰기 중심의 문어체가 문장 표현 방식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구어체는 화자의 감정, 태도,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높임법과 어미 변화를 수반하며, 실시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반면, 문어체는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문체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정보 전달의 명료성과 논리성을 강조하는 진술에 중점을 둔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장 구조의 일관성, 어휘 선택의 중립성 등에서 높은 정확성과 통일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어체의 대표적인 종결 어미가 바로 해라체의 '-다'이다. '-다'는 사실, 상태, 판단을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서술하며, 학술적 글쓰기, 설명문, 보고서, 뉴스 기사, 사전 정의, 서사문 등 다양한 문서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 한국어는 높임말 체계가 발달한 언어 중 하나**이다.**
-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문자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Key Points

▣ 문어체의 문장 유형

1 평서문

평서문은 사실, 상태, 판단 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유형으로, 문어체에서는 명확하고 감정이 절제된 형식으로 구성된다. 주로 해라체의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며, 설명문, 보고서, 기사, 사전 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형으로 쓰인다. 문어체에서는 내용의 정확성과 문장 형식의 일관성이 중시된다.

(1) 기본 활용

'-다'는 동사, 형용사, '명사 + 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동사 현재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ㄴ다', 자음으로 끝나면 '-는다'가 어간에 붙으며, 형용사 현재는 '-다', 명사에는 '-이다'가 결합된다.

- 현재 제주도에 비가 많이 **온다**.
- 한국의 학생들은 점심으로 급식을 먹**는다**.
- 오늘 날씨가 맑**다**.
-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2) 부정 표현

문어체에서는 장형 부정 '-지 않다'나 '-지 못하다'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구어보다 더 형식적이고 명확한 어조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다.

-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 그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다.**
-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Note

▶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

문어체에서는 '안', '못'과 같은 단형 부정은 구어적 표현으로 여겨지므로 사용을 피한다. 대신 '-지 않다', '-지 못하다'와 같은 장형 부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안 간다. (X) → 가지 않는다. (O)
- 못 한다. (X) → 하지 못한다. (O)

(3) 시제

현재 시제는 '-다', 과거는 '-았/었다', 미래는 '-겠다' 또는 '-(으)ㄹ 것이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어체에서는 진술의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제 어미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에 결합된다.

- 이 도시는 매년 인구가 증가**한다**.
- 지난해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 앞으로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겠다**.
- 다음 발표에서는 그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4) 높임 표현

문어체 평서문에서도 높임 표현은 필요하다. 주어에 대한 주체 높임, 목적어나 관련 인물에 대한 객체 높임 등은 문장의 격식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다만, 문어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상대 높임이나 화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겸양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신다**.
- 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셨다.**
- 저분은 항상 정직하**신** 분이다.

2 의문문

문어체 의문문은 정보 확인이나 사실 탐색의 목적을 가지며, 구어체보다 더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한다. 종결 어미는 용언의 품사와 시제에 따라 달라지며, 공식 문서, 보고서, 학술 텍스트, 설명문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문체적으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논리적이고 간접적인 어투가 특징이며,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 제기, 반론 제시, 비판적 사고 유도의 기능도 수행한다.

■ 의문형 종결 어미의 종류와 용법

품사 / 시제	종결 어미	예
동사 (현재)	-는가	•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형용사 (현재)	-(으)ㄴ가	• 이 방법이 정확**한가?**
명사 (현재)	-인가	• 이 결과가 오류의 원인**인가?**
동사/형용사 (과거)	-았/었는가	•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는가?**
동사/형용사 (미래)	-겠는가	• 그 정책이 실현되**겠는가?**
동사/형용사 (미래/추측)	-(으)ㄹ 것인가	• 다음 발표가 더 명확**할 것인가?**

Note

▶ '-나'의 문어체 용법

'-나'는 문장의 전체 진술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반문적, 내면적인 질문을 표현할 때 쓰이며, 설명문, 보고서, 서사체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는 '-는가'보다 문학적이고 간접적인 어조를 전달하며, 사실을 묻는다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이 논리 전개가 독자를 충분히 설득하는가?
  → 이 논리 전개가 독자를 충분히 설득하**나?**
- 진정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가?
  → 진정한 원인은 다른 데 있**나?**

3 명령문

문어체 명령문은 특정 행위나 상태를 지시하는 문장 유형이며, 목적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종결 어미가 사용된다. '-(으)라'는 간결하고 강한 어조가 필요한 표어, 캠페인 문구, 기사 제목 등에서 쓰이며, '-(으)십시오', '-(으)시기 바랍니다'는 공공 문서나 안내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고, '-(으)시오'는 격식을 갖춘 지시문이나 전통적 문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문어체 명령문 형식과 용법

명령문 형식	종결 어미	사용 맥락	예
간접 명령문 해라체	-(으)라	구호, 표어, 기사 제목 등에서 강한 명령 전달	• 출입을 금지하**라**! • 모두 행동하**라**!
정중 명령문 하십시오체	-(으)십시오, -(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문서, 업무 안내, 시험 지시 등에서 일반적 사용	•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 아래 지침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중 명령문 하오체	-(으)시오	시험 지시문, 교재 안내문, 고전 문서 등에서 제한적 사용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문장을 완성하여 작성하**시오.**

4 청유문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문장 유형으로, 문어체에서는 주로 '-자'와 '-(으)ㅂ시다' 두 가지 종결 어미가 사용된다. '-자'는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실천의 제안을 나타내며, 정책 선언문이나 캠페인 문구 등에 적합하다. '-(으)ㅂ시다'는 보다 공손하고 공식적인 제안 표현으로, 연설문, 담화문, 공공 자료 등에서 쓰인다.

- 시민 모두가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
-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자**.
- 이제 함께 해결책을 찾**읍시다**.
-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활용

동사	평서형	의문형	형용사	평서형	의문형
보다	본**다**	보**는가?**	싸다	싸**다**	싼**가?**
찾다	찾**는다**	찾**는가?**	많다	많**다**	많**은가?**
쓰다	쓴**다**	쓰**는가?**	크다	크**다**	큰**가?**
부르다	부른**다**	부르**는가?**	다르다	다르**다**	다른**가?**
듣다	듣**는다**	듣**는가?**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가?**
만들다	만든**다**	만드**는가?**	멀다	멀**다**	먼**가?**
돕다	돕**는다**	돕**는가?**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가?**
짓다	짓**는다**	짓**는가?**	그렇다	그렇**다**	그런**가?**

Grammar in Action

1.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문어체에서는 개념, 사실, 정의 등을 중립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할 때 평서형 '-다'를 사용한다. 이러한 문장은 감정 표현 없이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며, 설명문, 백과사전, 교재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 이 단어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다**.
-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2 판단이나 평가를 진술할 때

문어체에서는 어떤 방안의 적절성, 연구 결과의 중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때 평서형 '-다'를 사용한다.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하며, 공식 문서, 보고서, 논문 등에서 자주 쓰인다.

- 결론적으로,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요약하자면, 제안된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

3 공공 지시나 안내를 전달할 때

공공 문서, 시험 지시문, 매뉴얼 등에서는 정중하고 명확한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으)시오', '-(으)십시오', 또는 '-(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이들은 모두 격식을 갖춘 문어체 명령문으로, 상황에 따라 직접성과 공손함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건이나 과정을 설명할 때

뉴스 기사나 보도문에서는 사건의 경과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과거 시제 '-았/었다'를 사용한다. 이러한 문장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전달에 집중하며, 독자가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구조대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였다**.
- 피해 상황은 오전 9시에 공식 발표되**었다**.
-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Note

문어체에서는 '했다', '됐다'와 같은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였다', '되었다'와 같이 원형을 유지한 표현을 써야 문어체에 적합하다.

5 의문을 제시하거나 성찰을 유도할 때

문어체에서는 독자의 사고를 유도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때 '-는가', '-나' 등의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 '-는가'는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질문, '-나'는 탐색적이고 문학적인 어조를 나타낸다.

-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가?**
- 이것이 최선의 방안**인가?**
- 진정한 원인은 다른 데 있**나?**

6 공동 행동을 제안할 때

문어체에서는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할 때 '-자'와 '-(으)ㅂ시다'를 사용한다. '-자'는 간결하고 단호한 제안, '-(으)ㅂ시다'는 정중하고 공식적인 제안에 적합하다.

- 모두가 함께 실천하**자.**
-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자.**
- 이 기회를 통해 변화를 시작**합시다.**

7 비판하거나 주장을 강조할 때

신문 사설, 연설문, 시위 구호 등에서는 강조 표현이나 간접 명령형 어미 '-(으)라'를 사용하여 독자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강한 주장을 전달한다. 이러한 표현은 단호하고 직접적인 어조를 통해 글의 주장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다.

-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 이제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
- 지금이 바로 바꿀 때**다.**